

호랑이, 10경기 7승3패 상승세...상위권 굳히기 나선다

선발·불펜 꾸준히 제 몫...타선서도 최형우 살아나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2위 대결이 팽팽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중상위권에서는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가 쌍끌이 상승세를 달렸다. SK 와이번스는 지난 한 주 모든 경기를 내주며 깊은 수렁에 빠졌다.

지난주 프로야구에서 단연 두각을 나타낸 팀은 두산이다. 앞서 한화의 18연패 탈출 제물이 되는가하면 주중 삼성전에서 내리 2연패해 4연패 늪에 빠지는 위기에 처했다. 2위 추격은 고사하고 3위 수성도 힘겨워 보였다.

하지만 주말 LG와의 3연전을 싸늘이 승리하며 공동 2위로 성급 올라섰다. 3연전 시작 전만해도 허경민, 오재일, 오재원 등 주축선수들의 줄부상과 대체선발 박종기, LG전 악세 알칸타라로 이어지는 선발 로테이션이 우려를 안겼으나 국해성 등 갑작 스타가 등장하며 내내 LG를 압도했다.

반대로 상승세를 달리던 LG는 주춤했다. 2주전 롯데와의 시리즈를 위닝으로 장식하고 지난 주중 한화전을 전부 쓸어 담았지만 주말 두산과의 3연전에서는 극도로 무기력했다.

좌완 에이스 차우찬이 초반 와르르 무너지며 불길하게 출발한 LG는 3연전 내내 흐름이 막히고 결과는 꼬였다. 뜨거웠던 로베르토 라모스는 허리 부상 이후 예전 같은 호쾌함을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이고 송은범 등 불펜진도 난조를 거듭했다. 여전히 공동 2위를 마크중이지만 두산 상대 1승5패, 최근 4연패 그리고 지난 3년간 8승30패라는 열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 고민이다.

시즌 초반 내내 비슷한 순위를 유지하는 키움과 KIA의 동행은 계속됐다. 4위 키움은 지난주 5승1패, 최근 7승3패 5위 KIA도 지난주 4승1패, 최근 7승3패로 순항했

다. 이정후, 김하성 등이 견제하고 주효상의 연이틀 끝내기 안타가 나오는 등 가공할 타선을 앞세운 키움은 에이스 제이크 브리검의 부상 공백이 무색하게 안정화에 접어들었다. KIA 역시 베테랑 최형우의 활약, 막강한 선발진과 불펜진의 위력이 더해져 대부분의 경기를 리드하는데 성공했다.

지난주 3승3패를 기록한 7위 삼성 역시 결과를 떠나 내용에서 합격점을 받았다. 외국인 타자 타일러 살라디노가 확실히 궤도에 올랐으며 최지광-유규민-오승환으로 이뤄진 필승조도 첫 선을 보였다. 김치찬 등 새 얼굴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어 현재 분위기와 전력 면에서 기대할 요소가 많다고 평가된다.

반면 지난 한 주 6경기를 모두 패한 9위 SK는 이제 최하위 한화에게도 2경기 반차이로 쫓기고 있다. 승수 차도 고작 2경기(SK 12승, 한화 10승)에 불과하다. 투타에서 총체적 난관인데 특히 믿었던 지난해 세이브왕 하재훈의 연속 불륜세이브는 깊



은 내상을 안겼다. 주전 포수 이재원이 복귀하고 주포 최정기 살아나는 분위기지만 전반적으로 무겁다.

앞서 악몽의 18연패 늪을 벗어난 10위 한화는 지난주 고작 1승(5패)을 얻는데 그

쳤다. 이성열, 최진행 등 베테랑들이 복귀했고 장시환, 김민우 등이 마운드에 올랐지만 선두 NC(1승2패), 2위 LG(3패)를 상대하기에는 버거움이 역력했다.



PBA 개막전 SK렌터카 챔피언십 기대하세요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FBA-LPGA 투어 개막전 SK렌터카 챔피언십 미디어데이에서 강동궁(왼쪽부터), 임성숙, 김가영, 강민구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웹 심슨, RBC 헤리티지 우승...통산 7승

심슨, 컷 탈락한 임성재 제치고 페덱스컵 랭킹 1위 등극

웹 심슨(미국)이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헤리티지(총상금 710만달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심슨은 22일(한국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 헤드 하버타운 골프링크스(파71·7099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몰아치며 7언더파 64타를 적어냈다.

심슨은 최종합계 22언더파 262타로 단독 2위 아브라함 앤서(멕시코·21언더파 263타)를 1타 차로 제치고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2012 US오픈 챔피언인 심슨의 통산 7번째 PGA투어 우승이다. 심슨은 지난 2월 피닉스 오픈에서 연장 접전 끝에 정상에 서기도 했다.

이번 우승으로 심슨은 임성재(22·CJ대한통운)를 밀어내고 페덱스컵 랭킹 1위로 올라섰다. 반면 컷탈락한 임성재는 3위로 내려 앉을 예정이다.

전반 라운드에서 2타를 줄인 심슨은 후반에 불이 붙었다. 12번홀(파4)과 13번홀(파4)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뒤 15번홀(파

5)부터 17번홀(파3)까지 3개 홀 연속 버디를 추가했다. 마지막 18번홀(파4)도 파를 기록하면서 타수를 잃지 않고 우승을 확정했다.

지난 1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앤서는 또 다시 우승 문턱에서 좌절했다. 앤서는 이날 (타를 줄이면서 선전했지만 1타 부족해 PGA투어 첫 우승을 다음 기회로 미뤘다.

3라운드 공동 선두 그룹을 형성했던 티릴 해턴(잉글랜드)은 20언더파 264타로 미국의 다니엘 버거와 함께 공동 3위에 자리했다.

전 세계랭킹 1위 브룩스 켈카(미국)는 18언더파 266타로 단독 7위에 올랐다. 지난해 더 CJ컵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이후 최고의 성적이다.

저스틴 토마스(미국)는 17언더파 267타로 공동 8위에 오르면서 페덱스컵 랭킹 2위를 지켰다. 세계랭킹 1위 로리 매길로이는 11언더파 273타 공동 41위로 대회를 마쳤다.

토트넘 챔스행 열쇠는 손흥민 손에...

토트넘의 골게터 해리 케인(27)이 복귀 후에도 기대만큼의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손흥민(28)의 비중이 더 커질 전망이다.

토트넘은 오는 24일 오전 4시15분(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파 스타디움에서 웨스트 햄과 2019-20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1라운드를 치른다.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노리는 토트넘은 무조건 승리를 가져와야 하는 경기다. 지난

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리그가 3개월여 만에 재개하자 희망을 가졌다. 리그가 중단되기 전 부상을 당했던 손흥민, 케인, 무사 시소코(31) 등 주축들이 완전히 회복, 정상적으로 훈련에 임했기 때문이다.

맨유의 레전드이자 현재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개리 네빌 역시 "손흥민과 케인이 복귀한 토트넘이 시즌 중단의 도움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맨유전에서 보여준 케인의 경

"우리가 알던 케인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케인의 부진이 이어진다면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비중은 커질 수밖에 없다. 손흥민은 올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서 16골 9도움을 기록 중이다. EPL에서만 9골 7도움을 올리면서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쌓았다. 특히 손흥민은 케인이 부상으로 빠졌던 지난 1월부터 오른 팔 골절 부상을 당했던 2월까지 5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다.

지난 맨유전에서도 손흥민은 자신이 맡은 왼쪽 측면 공격수 역할은 물론이고, 최전방으로도 움직이면서 공격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전반 31분에는 다비드 데헤아 골키퍼에 막혔지만 날카로운 헤딩으로 맨유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기도 했다.

경기 후 공개된 기록에서도 손흥민이 팀 공격의 핵심임을 알 수 있었다. 손흥민은 맨유전에서 팀 내 가장 많은 4개의 슈팅을 시도, 2개를 유효슈팅으로 연결했다. 또한 4번의 드리블 시도, 6번의 크로스 시도 등으로 팀 내에서 기록이 가장 좋았다.

케인이 자신의 컨디션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4개월 만에 출전한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손흥민은 어깨는 더욱 무겁게 됐다. 다음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손흥민의 활약이 반드시 필요한 토트넘이다.

손흥민, 왼쪽 측면 공격수는 물론 최전방 움직임 등 활발 5개월만에 경기 나선 케인, 맨유전 평점 3점 아직 무거워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랐던 토트넘은 올 시즌 초반 부진을 겪으면서 리그 8경기를 남겨둔 현재 11승9무10패(승점 42)로 8위에 머물고 있다.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이 주어지는 4위에 올라 있는 첼시(15승6무9패·승점51)와는 승점 9점 차다.

갈 길이 먼 토트넘은 지난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의 리그 재개 후 첫 경기에서 1-1로 비겼다. 아쉬움이 남는 결과였다. 토트넘은 지

기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지난 1월 햄스트링 부상 이후 약 5개월 만에 경기에 나선 케인은 이날 선발 출전한 두팀의 22명 중 공 터치가 가장 적었고, 슈팅도 1개에 그쳤다. 풋볼 런던은 맨유전 후 "케인이 오랜만에 나선 경기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찾지 못했다"며 평점 3점을 줬다.

잉글랜드 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대런 벤틀리는 "전과 비교해 속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아직 부상이 있는 것 같다"면서



순천공공스포츠클럽 대한체육회 공모사업 선정

매산중 축구부 해체된 학교운동부 지원사업 택전, 배드민턴, 탁구 전문선수반 육성 종목

순천공공스포츠클럽이 지난 17일 대한체육회가 발표한 '2020년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사업 2차 공모'에서 '신규 전문선수반 육성부문'과 '해체된 학교운동부 스포츠클럽장단 육성지원 부문'에 선정되어 종목별 각각 2천5백만 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축구, 택전, 배드민턴, 탁구 4개 종목은 소년체전,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는 전문선수반으로 육성 지원하게 되며, 이와 함께 종목별 취미반이 운영 되어 해당 종목의 저변확대에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매산중 축구부는 해체된 운동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순천FC(U-15)로 창단해 순천공공스포츠클럽에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으며, 중앙초-순천FC(U-15)-순천고로 이어지는 순천 축구의 육성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순천공공스포츠클럽은 지역내 체육시설을 중심으로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강습을 제공하여 누구나 쉽게 스포츠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기반 공공스포츠 클럽이다.

순천시 양선길 체육진흥과장은 "지역 스포츠클럽이 남녀노소 누구나 스포츠를 즐기는 활동의 장이 되고 나아가 지역주민 교류의 장이 되어 스포츠클럽 회원 중 재능을 키워 국가대표 선수로 발전하는 스포츠 인재 양성의 장이 되는데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부터는 매년 사업운영 평가를 통하여 지속적인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연간 총액별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